

관동지방 으뜸의 연구·저술 마당

강원도 춘천의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차세대의 앞날은 지방시대를 향해 열려 있다. 지식문화 또한 지역적 뿌리로부터 뻗어갈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학술활동의 다차원적 공간은 지방대학의 몫으로 남는다. 강원도 한림대학교의 한림과학원(원장 金元龍)이 주목 받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에 대비하여 인류미래를 재조명하고 그 대처능력을 개발 육성”함을 목적으로 작년 1월1일 문을 연 한림과학원은 이 대학의 특색과인 역사학연구부(연구책임 李基白)를 비롯해 교육(鄭範謨)·가치관(高範瑞)·남북문제(盧明植)·사회복지(李斗龍) 등 5개 학술연구부를 두고 주제별 연구를 심화, 그 결과를 총서와 논문집으로 묶어내고 있는 강원지역의 ‘학술마당’이다.

다섯 연구부는 미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가치관의 전도, 왜곡된 역사관, 통일을 앞둔 남북간 이질화, 백년대계로서의 교육, 인류복지 등 다섯가지 문제의식”을 뽑아낸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이두호연구실장의 설명이다. 매달 첫 수요일에 연구에 대한 의견 교환 모임과, 2·4주 수요일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자유주제 발표·토론의 만남으로 계속되는 연구진행은 한림과학원의 으뜸가는 행사이기도 하다.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의 학자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 논의는 사투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것.

연구비 지원은 학교예산과는 별도로 책정되는데 지난해 2억, 올해 3백여원의 연구비를 지원, 우선 올해의 결과물로 3권의 총서가 묶여 나왔다. 지방대학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술연구를 지원한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데다 그

연구주제의 신선함에 벌써부터 각 학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한림과학원총서’ 시리즈로 이름 붙여진 이 세권의 책은 「현대한국사학과 사관」(일조각) 「교육난국의 해부」(나남) 「빈곤론」(나남) 등. 이 가운데 제1호를 장식한 「현대한국사학과 사관」은 오늘날 한국사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한 사관으로서 민족주의 사관(노태돈) 실증사학(홍승기) 진화론적 사관(이현해) 유물사관(이기백) 민중사관(이기동)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기백교수(한림대)가 “한국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유물사관만이 사회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편협한 논지를 반박한 ‘유물사관론적 한국사상’이나, 이기동교수(동국대)가 몇가지 문제점을 들어 민중사학이 “현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사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한국판 마르크스의 역사학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신랄히 비판한 ‘민중사학론’은 학계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눈길을 끈다.

鄭範謨교수(한림대)를 비롯해 14명의 학자들이 공동집필, 한국교육의 총체적 논의를 개진한 「교육난국의 해부」에서는 입시교육으로만 치닫는 오늘의 한국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저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난국’이 더 원천적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오늘날 빈곤의 속성과 해결방안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빈곤론」은 빈곤의 원인과 대책 빈곤가구의 생활실태, 한국의 빈곤대책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영·미·일·독 등 각국의 빈곤문제에 관한 실태를 부



한림과학원에서 열린 제5회 수요세미나. 작가 박경리씨의 “작가는 왜 쓰는가”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록에 실어 비교삼은 것은 간과하고 있던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첫 결실에 이어 5개 연구부에서 진행중인 연구주제들도 흥미롭다. 한국인의 가치관 전반을 원론적으로 분석하고 21세기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검토하게 될 「가치관에 관한 연구」나, 세계사 속의 주요한 민족분열과 재통일의 사례를 중국·독일·이탈리아 등의 나라와 비교사적 접근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룬 「제민족의 분열과 재통일의 비교사적 연구」 「제2차 세계대전후의 한반도 분단과 통일운동」,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내의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을 비판할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

한림과학원의 이같은 장기연구과제 외에 학내외의 교수들에게 단기연구과제를 공모, 지원하는 사업도 특색이다. “학내외를 불문한 모든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타대학의 입지를 앞서는 개방성이 돋보이기도 한다. 작년 총33개 과제가 응모해와, 현재 한림대학의 4개 연구과제를 합쳐 모두 14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3백~5백만원의 연구비가 지급,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각 부문마다 논문집 형태로 묶어, 내년 상반기면 책으로 쏟아질 모양이다.

지성의 상아탑에 인제가 풍부해야 함은 마치 담에 물이 풍부해야 아래의 물흐름을 이롭게 할 수 있음과 같다. 한림과학원의 학술움직임에 부여지는 각별한 시선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지방대학이 실천하고 있다는 데 모아진다. 지금의 인문·사회과학 중심에서 “자연과학 분야까지 지속적인 학술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운영위원장인 尹德勳박사의 약속이고 보면 한림과학원에 명실상부한 국내 학술원으로서의 도약을 기대해볼적이다.

— 김지원 기자

출판사와 함께 성장하는 지업사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고려지업사

서적지 • 모조지 • 아트지 • 엠보싱지 •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



다물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성이 가득한 책을 만듭니다. ”

좋은 책은 알찬 내용과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자와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표지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도 독자를 배려하는 정성이 넘칠 때 좋은 책이 주는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다물기획은 좋은 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292/4546, 294/9639 Fax: 294/6443